**[CJ제일제당] 합격 자기소개서**

**직무 : 그래픽 디자인**

**1. CJ제일제당 및 선택한 직무에 대한 지원동기는 무엇인가요?**

① 선택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

②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(본인의 강점, 준비, 관련 경험에 근거)

**[언제 어디서나 기승전'그래픽']**

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 끝은 그래픽이었습니다.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교양수업, 아르바이트, 기타를 배우고 싶어 시작한 동아리에서도 그래픽 작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시험과 과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그래픽 작업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깨닫고 그래픽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.

**[일상을 새롭게 만들다.]**

작년 여름, 쁘티첼 썸머 디저트 & 뮤직 피크닉을 보러 갔었습니다. 다른 공연들과는 달리 기억에 남은 것은 가수가 아니라 쁘띠첼이었습니다. 피크닉이라는 컨셉을 잘 설명하고 있는 포스터, 곳곳의 소품들까지 모두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매체로 느껴졌습니다.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문화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제일제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꼭 제일제당에 입사하고 싶어졌습니다.

**[소통을 즐기는 디자이너]**

디자이너는 머릿속에 있던 제품을 실제로 제작해 주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수업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능력을 발휘해 결과물을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다. 제 아이디어는 센서를 이용해 그릇에 담겨있던 빛을 다른 조명이 가져가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센서 업체 쪽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해 진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저는 업체를 자주 방문하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들었고, 일주일에 3번 이상 회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, 납땜도 하고 전선도 연결하면서 직접 배워보았습니다. 다른 팀은 업체에 맡겨놓기만 해 애초에 디자인과는 달라 당황하는 것을 봤지만, 저희 팀은 의견을 잘 전달했고 직접 참여도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결과물을 받았습니다.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분야를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. 이 점을 살려 CJ 제일제당의 일원이 되어 하나의 제품을 향해 많은 부서 사람들과 협업하고 싶습니다